

남도예술은행 3일 진도 윤림산방서 인기작가 작품 30점 경매

“축제 즐기고 그림도 한점 구입하세요”

“흥겨운 축제도 즐기고 그림도 한 점 구입하세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 진도에서 시중 가격의 절반에 그림을 살 수 있는 경매가 열린다. 또 축제 기간동안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회도 마련돼, ‘여행’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지역 한국화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남도예술은행(이하 예술은행)은 ‘신비의 바닷길 축제’(5~7일)를 기념하기 위해 3일 진도 윤림산방에서 ‘토요경매’ 인기 작가들의 작품 30점을 특별경매한다.

이번 경매에는 예술은행이 올해 새롭게 구입한 작품 가운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인기 작가들의 6호 이하 소품만을 선보인다. 예술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nartbank.co.kr)와 토요경매를 통해 작품이 가장 많이 팔린 인기 작가 16명을 엄선했다.

예술은행의 ‘초대’를 받은 한국화 작가는 박명락(작품명 ‘봄 소리’), 김정자(여름), 박창주(갯내음), 박대웅(남도의 노래), 박문중(불날), 조병연(섬 풍경)씨 등 9명. 이와함께 김은옥(사랑이), 김경문(무궁화), 김경현(참새와 동백), 박성호(섬 이야기)씨 등 4명의 문인화가와 정광섭(삼)씨 등 3명의 서예가도 경매에 참가한다.

이들 작품은 시중가의 50%가량에 경매되며, 시작가는 최저 6만원에서 최고 19만원까지다. 작품은 바로 구입 수 있도록 모두 역자로 제작됐다. 현장에서 경매사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바로 경매에 들어가며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에게 최종 낙찰된다.

또 윤림산방에서는 3~30일까지 예술은행 선정



3일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 진도에서 한국화가의 작품을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미술품 경매가 열린다. 사진은 최근 남도예술은행 주최로 열린 토요경매 모습. <남도예술은행 제공>

신비 바닷길 축제 기념... 6호이하 50% 싸게 팔아

토요경매 작가 ‘작은 그림 큰 기쁨’展도 한달 열려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작은 그림 큰 기쁨 전’을 연다. 한국화 하태환, 김현숙씨, 문인화 이화자씨, 서예 전종구씨 등 124명의 작가들이 250여점을 선보인다.

남도예술은행은 전남도가 생활기반이 없는 전업 한국화가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6년 도입한 경매 시스템이다.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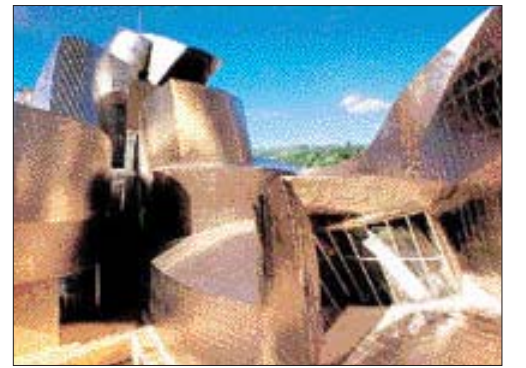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열리는 토요 경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미술품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화, 문인화, 서예부문 등에서 124명의 작가를 선정해 1천383점의 작품을 구입했고, 경매를 통해 292점을 낙찰시켜 1억여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문의 061-286-54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

기울리아 카민 ‘세계의 미술관’ 펴낸 동서양 미술관 40여곳 역사 등 다뤄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지난 1980년대만 해도 인구 35만 명의 스페인 빌바오시는 쇠락해가는 탄광도시에 불과했다. 빌바오시의 주력산업이었던 탄광 및 조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른 오늘날, 빌바오는 스페인인 ‘먹어 살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변신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덕분이다.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들어서면서 빌바오는 국제적인 문화명소로 떠올랐다. 지난해까지 이 미술관을 다녀간 관광객은 약 986만 명에 이른다. 일명 ‘빌바오 효과’로 불리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인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빌바오’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탈리아 출신의 큐레이터 기울리아 카민이 펴낸 ‘세계의 미술관’(원제·Museums·사진)은 이 같은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책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하나의 작품 그 자체인 미술관 외형 뿐만 아니라 리처드 세라, 로버트 라우션버그, 장 미셸 바스키아 등 화려한 컬렉션, 미술관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빌

바오 미술관의 모든 것을 낱알이 보여준다. ‘세계 각국의 건축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책은 프랑스의 심장 루브르 박물관, 인류역사의 축소판인 영국의 대영박물관, 미국의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5000년의 이집트 문명의 보고인 이집트 미술관, 러시아 미술관의 백미 에르미타주 미술관 등 동서양의 미술관 40여 곳을 순례한다.

미술관의 건립배경, 역사, 소장품, 건축 양식 등이 300여점의 화려한 도판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특히 프랑크 게리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부터 렌초 피아노의 파리 퐁피두 센터, 안도 다다오의 독일 비트르 디자인 박물관 등 세계 유명건축가들의 작품은 미술과 건축,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 책장을 덮고 나면 마치 세계 미술관들을 직접 둘러 본 듯한 충만감이 밀려온다.

(생각의 나무 4만9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작가 11명 베이징서 전시회

광주·전남지역 작가 11명이 11일까지 중국 베이징 파산스에 위치한 국제예술센터에서 ‘한·중미술교류’전을 갖는다.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한·중 작가 240명이 초대된 대규모 전시회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에서 강숙자, 김익도, 신수정, 안유자, 이매리, 정순이, 최재영씨 등 10명이 참여하며 전남에서는 신문용(목포대 교수)씨가 선정됐다. 전국에서는 120여명이 선정돼 50호 이상 크기의 작품 1점씩을 출품하게 된다.

신수정씨는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한 가지와 꽃을 피워올린 나무를 형상화한 ‘inspiration’을, 조강현씨는 진한 파랑색을 잔뜩 풀어 밥의 신비로운 기운을 표현한 ‘밤’을 각각 선보인다.



정순이 작 ‘내안의 존재’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흐 ‘G선상의 아리아’ 재즈로 듣는다

‘강윤숙 재즈여행’ 6일 광주문화회관

재즈로 편곡해 듣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는 어떤 느낌일까.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재즈 콘서트를 열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강윤숙(사진)씨가 자신이 속해 있는 JS뮤지션 그룹과 클래식 레퍼토리로 연주회를 갖는다.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화요예술무대-강윤숙의 재즈 여행’ 무대에 서는 강씨는 이번 공연에서 김성광(베이스), 우재식(드럼)씨와 트리오로 바흐의 ‘인벤션4’ ‘전주곡 2번’ ‘전주곡 6번’,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등을 들려준다.

또 공연 후반부에는 ‘Cheek to cheek’ ‘No



more blues’, ‘I fall in love too Easily’ 등 정통 재즈 넘버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대인(기타), 배경민(색소폰), 송광우(피커션), 윤은주(보컬)씨 등이 함께 출연하며 재즈 그룹인 ‘블루스’와 ‘블루 보사’가 찬조출연한다.

한편 강 씨가 소속된 JS뮤지션 그룹은 지난 2005년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30분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JS 뮤직센터에서 ‘프라이데이 재즈 콘서트’를 열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10-9254.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김수영 시인 미발표 詩 15편 발굴

정치적 내용·성 담론 다룬 시 포함

올해로 40주기를 맞는 ‘풀’과 ‘폭포’의 시인 김수영(1921~1968·사진)의 미발표 시들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1일 창비와 문학계 등에 따르면 김 시인이 생전에 쓴 15편 안팎의 시들이 계간 ‘창작과비평’ 여름호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이 시들은 김 시인의 미망인 김경현 씨가 육필 원고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도 1~2편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굴된 시 중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념적인 색채 때문에 당시 정치 상황에서 발표할 매체를 찾지 못한 시들도 있고, 성(性)담론을 다룬 시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비 여름호에서 시의 해제를 맡은 문학평론가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남긴 작품이 많지 않은 김수영



시인의 시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데다 의미 있는 작품들도 많아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시단에 큰 영향력을 끼친 김수영 시인은 작품활동 초기 개인과 모더니티 탐구에 주력하다 후기에는 현실 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주로 썼다.

그는 1968년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47년의 길지 않은 생애 동안 마지막 시 ‘풀’까지 총 170여 편의 시와 80여 편의 산문 등을 남겼다.

한편 올해 6월 김 시인의 40주기에 맞춰 민음사가 김수영 오마주 시집과 김수영 육필 원고로 된 시집을 발굴하고 유족들이 시인이 남긴 원고와 사진 등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a movie festival titled 'Happy Time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It features a colorful banner at the top with the text 'movies 인기영화와 흥겨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Below the banner are six column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cinema location: 메가박스 (Mega Box), 엔터 시네마 (Enter Cinema), 콜롬버스 시네마 (Columbus Cinema), 써너스 전대 (Sterns Theater), 하미 시네마 (Hami Cinema), and 제일 시네마 (Jeil Cinema). Each colum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For example, 메가박스 lists '아이언 맨' (Iron Man) at 12:00, 18:00, and 21:00. The bottom of the advertisement features large movie posters for Iron Man, Hot (호트), Forbidden Kingdom (포비든 킹덤), and The Artist (아티스트).